

경품·할인·무이자...이달에 車 바꿔볼까

국내 완성차업계, 최대 350만원 할인 프로모션

기아차 주요 7개 차종 할인... 경품행사도 눈길

국내 완성차업계가 2월 한 달간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노후차 등 대표 차종에 대한 할인부터 경품, 무이자할부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대대적인 판촉전에 나섰다.

기아자동차는 '럭키 페스타 선착순 특별 판매'를 통해 주요 7개 차종에 대해 최대 7%를 할인해준다.

'모닝', '레이',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등을 출고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설 귀향지 특별조건' 프로모션을 통해 오는 11일 이전까지 계약 요청을 마치고 오는 15일 안에 출고하는 개인·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모닝, 레이, K3, K5, 스포티지 등을 구매시 20만원을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이달 중으로 기아차 전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들은 모두 GS25 2천원 상품권을 증정받는다.

또 추첨을 통해 200만원 상당 여행상품권(1명), 다이슨 공기청정기(5명), SPC

해피콘 2만원 상품권(50명), 쏘울 양말(100명), 기아차 10만원 할인쿠폰(2천명) 등이 제공된다.

국내 소형 SUV시장을 겨냥해 지난달 출시된 '쏘울부스터'도 첫 구매 할인 등 혜택이 있다.

앞서 지난 2월 기아차 광주공장 임직원들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향을 찾은 귀향객들을 대상으로 기아차 판촉물 배포와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 등을 알리는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과 지난 1월 출시한 '쏘울부스터'를 비롯해 광주공장 생산 차량 스포티지, 봉고트럭과 기아차에 대한 애감없는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호소했다.

현대자동차는 '설맞이 특별조건'으로 오는 15일까지 차량 계약을 마치고 이달 중 차량을 출고하는 고객들에게 2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차종은 '아반떼', '쏘나타(HEV·PHEV 제외)', '그랜저(HEV 제외)', '싼타페' 등이다.

최초 등록 기준 차량 7년 이상 노후 차량을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기법 노후차 특별조건' 행사도 진행한다. 해당 행사는 '아이오닉 EV', '코나 EV', '넥쏘', '팔리세이드', '포터', '스타렉스', 'G90' 등을 제외한 모든 차종에 적용되며 소비자는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쌍용자동차는 자사의 일부 모델에 한해 최고 200만원까지 할인해주는 '북드림 세일페스타'를 실시하고, 노후경유차 대차 고객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노후 경유차 교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구매혜택을 제공한다.

'북드림 세일페스타'는 'G4 렉스턴' 최대 100만원, '코란도 투리스모' 150만원, '코란도 C' 100만원, '티볼리 브랜드' 50만원 등 할인한다.

오는 16일까지 티볼리 브랜드를 구매하면 20만원 특별 할인을 받는 '얼리버드(Early Bird) 혜택'도 추가로 누릴 수 있으며 이후 23일까지 15만원, 그 후 월말까지 구매 고객은 10만원 할인혜택을 받는다.

고객들은 노후 경유차 교체 프로그램을 통해 쌍용차 전 모델을 100만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정부가 시행 중인 개별 소비세 감면혜택에 대해 노후 경유차 보유

고객(2008년 이전 등록, 폐차 조건)이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원의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 선수를 제로에 3.9%, 60개월 할부도 운영된다. 6~48개월, 유예율 0~80% 범위에서 할부기간과 유예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스페셜 유예할부 프로그램 'G4 부담제로할부'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2월 한 달간 '황금돼지해 쉐보레 새 출발 페스티벌' 프로모션을 통해 신인생, 졸업생, 신규 입사자, 신혼 부부, 출산, 임신 가정 등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며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 '이쿼닉스'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특별 할인이 추가로 제공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2월 한 달 간 신차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금융상품을 포함한 설 귀향여비 지원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차종(QM6 가솔린, 마스터, 전기차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36개월 할부 구입 시 1.99%의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중형 상용차 르노 마스터는 일반 할부의 경우 3.9%(36개월), 4.9%(60개월)의 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48개월 스마트 잔가 보장 할부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현대자동차와 제주신라호텔 전기차 무료 시승 서비스

제주도에서 전기차 무료 체험하세요

현대차, 제주신라호텔 투숙객 대상 프로모션

현대자동차와 제주신라호텔이 이달 1일부터 향후 1년 동안 제주신라호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료 체험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자동차와 제주신라호텔이 전기자동차의 우수한 성능과 편리성을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전기차 무료 체험 서비스는 코나 일렉트릭 5대, 아이오닉 일렉트릭 5대의 총 10대로 운영되며 추후 차량 대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코나 일렉트릭은 '2019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고 수준의 주행 성능과 첨단 주행 안전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현대자동차-제주신라호텔의 전기차 무료 체험 서비스는 제주도 지역 렌트카사인 '제주렌트카'와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

'달카'의 제휴로 운영된다. 이용 방법은 달카 앱을 통해 고객이 직접 배차 현황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자유롭게 편리한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www.hyundai.com) 및 제주신라호텔 홈페이지(www.shilla.net/jeju)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제주신라호텔과 제휴를 통해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방문한 고객 분들께 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전기차 무료 체험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클린 모빌리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전남우정청, 황금돼지해 우체국예금 착한 이벤트

오는 4월말까지 최고 연 3.3% '다모아e적금' 특판

전남지방우정청은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오는 4월30일까지 서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황금돼지해 우체국예금 착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우체국예금 특판 상품인 '우체국 다모아e적금'에 가입하거나, 우체국 예금에 일정금액(수시입출식 100만원, 정기예금 500만원) 이상을 예치하면 추첨을 통해 총 3천19명에게 우체국쇼핑 한도 세트와 한도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새로 출시한 '우체국 다모아e적금'은 총

1만 계좌 한도로 특별판매하며 우체국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으로 가입할 수 있다. 판매량(최고 0.3%p)과 개인별 거래 실적(최고 0.7%p)에 따라 최고 연 3.3%까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은 지난달 18일 금리조정으로 가입 기간별 기본금리를 정기예금은 0.20%p, 정기적금은 최고 0.15%p 인상했고, 이에 따라 3년 만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경우 각각 2.4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지난 2월 기아차 설맞이 판촉활동에 참가한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관리자 협의회, 파트장협의회 회원들과 기아차 광주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

치맥에서 피맥, 이제는 책맥까지

맥주 트렌드, 마실거리서 놀거리로 변화 거듭 다양한 신조어 양산 생활속 깊숙히 자리잡아



맥주가 치맥, 피맥, 혼맥, 편맥, 책맥 등 다양한 용어를 양산하며 생활 속에 깊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6일 오비맥주가 빅데이터 업체 ㈜뷰마루에 의뢰해 실시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맥주 관련 용어들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뉴스, 블로그, 지식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채널에 언급된 맥주 관련 키워드는 총 800만 건이 넘었다.

이 중 '치맥' (치킨과 맥주, 언급량 18만 5천19건), '피맥' (피자와 맥주, 8만4천8

건) 등 맥주와 함께 즐기는 음식과의 조합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혼맥' (혼자 마시는 맥주, 4만307건), '낮맥' (낮에 즐기는 맥주, 2만2천401건), '편맥' (편의점에서 마시는 맥주, 4천806건), '책맥' (책과 맥주, 3천59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혼자 여가를 즐기는 '혼놀' 트렌드와 가벼운 음주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잡으며 '혼맥' 언급량이 급부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저도수 맥주와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낮맥'과 '편맥', '책맥', '북맥'도 젊은

이들이 자주 언급하는 용어로 등장했다.

봄바루 관계자는 "절대적인 언급량은 여전히 음식과 맥주의 조합이 많지만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 맥주를 즐기는 장소나 상황, 문화와 결합한 다양한 맥주 용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맥주에 대한 요즘 젊은 이들의 인식이 단순한 마실거리를 넘어 놀거리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맥주 브랜드 중에서는 2018년 1월 이후 10개월 동안 '카스(언급량 5만2천 984건)'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호기자 haिता2000@srb.co.kr

한전KDN, 권익위 부패방지 평가 '1등급'

CEO 중심 청렴컨트롤타워 구축 민간사회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



KDN은 '청렴문화 정착'과 '정립개선 효과'라는 두 개 영역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특히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영역은 지난해 60점에서 97점으로 크게 향상됐다.

이는 CEO를 중심으로 한 전사적인 윤리경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청렴 컨트롤타워 구축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민간 협력 활동 노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KDN은 지난 2월 박성철 사장 취임 이후, 윤리경영 전담부서인 윤리준법팀을 신설하고 갑질근절, 성희롱·성폭력 등을 포함한 인권경영선포 및 안전,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윤리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자체·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주도하며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성철 사장은 "명실상부한 청렴문화 선도기업으로서 내부 윤리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 주도의 청렴 한국 실현을 위한 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윤리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ता2000@srb.co.kr

즉석밥에 햄버거·어묵까지... 설 전후 생활물가 또 '들쭉'

맥도날드·서브웨이·CJ제일제당 최저임금·쌀값 인상 도미노 현상

설을 전후해 우려했던 대로 또다시 생활물가가 들쭉이고 있다.

연초부터 각종 식음료 및 의식물가가 오르면서 일년 내내 가격 인상이 화두가 됐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다시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 증가분이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가격 인상이 잇따르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끌어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올해도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외식·식품업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잇달아 가격 인상 소식을 발표했다.

전남신보 -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충 시사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형천)은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서옥원)와 도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남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일부터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들어갔다.

전남신보는 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농협은행은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보증신청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이는 유동성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형천 이사장은 "앞으로도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ता2000@srb.co.kr

블, 스테이크엔치즈, 터키베이컨아보카도 등 일부 샌드위치와 파티플래터, 더블업 토핑 메뉴 가격을 올렸다.

이런 데다 식품업체에서도 가격 인상 소식이 들리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즉석밥인 '햇반'을 비롯해 어묵, 장류 등 7개 품목의 가격을 오는 21일부터 올리기로 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지난해 즉석밥과 어묵 등의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1년 만에 또 다시 가격을 올린다.

햇반의 경우 쌀값 상승이 주된 인상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쌀값이 27.7% 오르고 지난해에도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높은 가격대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햇반 210g 제품은 1천480원에서 1천600원으로 오른다.

이 밖에 어묵과 맛살도 수산물 가격 인상을 반영해 각각 평균 7.6%, 6.8%씩 올리기로 했다. 액젓과 장류, 다시다 등도 인상 대열에 포함됐다.

이처럼 외식뿐 아니라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행렬이 재개되면서 설 이후에도 생활물가 인상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월로 넘어오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새로 임금이 반영된 만큼 인건비 증가가 현실화되고 결국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관계자는 "지나해와 마찬가지로 물가 인상은 1.34%이고 가격이 조정된 제품의 평균 인상은 2.41%다. 샌드위치 브랜드인 써브웨이가 가격 인상에 합류했다. 지난 1일부터 미트

뉴스